

先史時代에는 종교, 마술, 의술이 一体로 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. 초자연적인 세계가 모든 事物속 에 内在하고 인간은 건강이나 活力,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병이 모두 종교적 혹은 마술적인 원인에 의해 생긴다고 생각하였던것 같다.

이 사진은 근대의 것으로 불거리라는 유행성 이하선염으로 인한 치료법으로 병 자체를 犬 으로 표시하고 犬을 잡아먹는 호랑이(虎) 2마리를 표해놓고 있는 주술적 치료법이 하나이다.

호랑이로 하여금 개를 잡아먹게 하겠다는 점복과 주술적인 것이다.

이 사진은 온양 민속박물관 소장.



세창치과기공소

752-5970, 778-8687

서울용산구 도동 1가 19-18 (금정빌딩 302)

대표 권혁문